

담양군, '담양형 지방소멸대응사업' 발굴 회의 개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위한 본격 활동 나서

전담팀 구성해 신규 사업 발굴 업무 등 수행

담양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담양군은 지난 14일 최형식 군수와 정광현 부군수, 전담팀 실과소장, 외부 전문가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형 지방소멸대응 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앞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인 확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정책분야 14개 부서와 교육지원청, 외부전문가, 4개 주민

협의체 구성원들로 담양형 지방소멸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협업예산 연계사업 검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따른 신규 사업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 간 지원하는 지방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재원이다.

올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대 12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2023년에는 최대 160억 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최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생태, 인문학·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우리군의 특색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금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투자계획 수립 방향 제시를 통해 우리군 인구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담양에 맞는 완성도 높은 투자계획을 세워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31억 등 40억 원 투입...근로자와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화순 동면농공단지에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된다.

화순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단지공)이 주관한 2022년 농공단지 복

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동면농공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공모에 전국 17개 농공단지가 응모해 전남에서는 화순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7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동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1320㎡,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편의점, 갤러리 북카페, 스포츠 건강센터, 다목적실 등 문화·편의·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복합문화센터는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복합문화센터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기업지원 설명회, 소규모 북토크, 문화갤러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기업과 지역 주민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동면농공단지의 '일자리 연계형 근로자 지원 주택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침이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매실 전정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65세 이상 고령 매실 재배농가 부담 ↓

구례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과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정 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4월 8일까지 실시한다.

매실나무는 적기에 전정작업을 완료해야 수량 및 상품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고령 또는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자가 전정이 어려운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고령 매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정인력의 인건비 50%(1인 1일 기준 9만원)를 지원하고 최신 전정기술을 지도·보급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

업예산을 확보 후 오는 11월부터 매실 전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여성농업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해당되며 자격연령 미만이라도 장애인 등 전정작업이 어려운 직접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 780-2094)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농업인 전정 지원사업을 감뿐만 아니라 매실 농가까지 확대하여 앞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총 18억 3천만 원 용자 지원

1% 저리로 시설·운영자금 15명 지원

곡성군이 올해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 총 15명을 선정하고 총 18억 3천만 원 규모에 대한 용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용자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1% 저리로 용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분야는 농축산업 분야는 물론 비농업 분야까지 모든 소득사업이 해당된다.

올해 곡성군 지원 대상자 15명 중 축산 분야 10명, 농업 분야 3명, 소상공인 분야 2명으로 축산 분야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에게는 시설자금의 경우는 최대 개인 2억 원, 법인 및 단체 3억 원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80%까지 용자가 지원된

다.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으로 총 사업비 100% 지원된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모두 이자율은 1%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는 사업완료 이전에 중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완공 여부를 확인한 후 농협을 통해 용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착수 증빙 서류, 사업추진 실적, 대출 담보 등이 확인되면 농협 대출계와 협의해 중도대출도 가능해졌다.

기동취재본부

"장성 관광 르네상스, 우리가 열겠습니다"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주민조직체 22개 팀, 경남 하동 '놀루와 협동조합' 방문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주민조직체(액션그룹) 22개 팀이 지난 11일 경상남도 하동군 '놀루와 협동조합'을 방문했다.

70억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는 축령산 편백숲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조직체 육성, 유희공간 리모델링 등 마을주민과 청년들이 기획·추진하는 관광사업을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사업 대상에 선정된 장성군은 올해 사업 추진 4년 차를 맞았다.

이날 팀원들이 찾은 하동군 '놀루와 협동조합'은 삼진강, 차밭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민과 여행



자에게 양질의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는 조합이다. 삼진강 달마중, 하동 차마실, 논두렁 축구대회 등 개성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인기가 높다.

답사에 나선 팀원들은 미술관, 음식점 등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 견문을 넓혔다.

기동취재본부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